

# ‘다르다’고 ‘틀렸다’는 미성숙 사회... ‘속의 민주주의’ 돼야

## 혐오민국 길을 묻다

〈下〉 ‘다름’에 대한 포용 절실

정확한 정보와 높은 이해성 필요  
사실·논증 통해다수결 보완해야

혐오로 물든 한국사회가 ‘다름’에 대한 학습과 수용을 통해 ‘속의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남녀·여여 갈등과 난민 혐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손가락질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낮은 이해 의지가 만난 결과이므로, 정확한 정보와 활발한 논증으로 단순 다수결 원리를 넘어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등학교 교사 과모(32)씨는 지난달 초 미술수업 시간에 제자의 여성 혐오 표현을 듣고 깜짝 놀랐다. 여학생이 만든 페미니즘 작품을 두고 남학생이 왜곡된 관점을 드러내서다.

과씨에 따르면, 당시 A양은 폼보드를 이용해 페미니즘과 여성 미술가를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는 1번 방에서 페미니즘 1~3세대를 설명하고, 2번 방



여성과 난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들끓고 있다. 이에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숙고하고 토론하는 ‘속의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픈에스

에서 페미니즘과 여성 미술가의 관계를 알린 뒤, 3·4번 방에서 프리다 칼로와 그의 작품을 보여주는 식으로 구성됐다.

과씨는 “작품을 대중 훑어본 B군이 ‘어휴, 페미네’라고 말했다”며 “학생에게 ‘페미니즘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묻자, 남성

혐오 사상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더라”며 혀를 찼다.

그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런 뒤틀린 시선이 확장 시절부터 이어지지 않도록, 가정은 물론 공교육 등에서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생각 다르면 ‘의식 없다’, ‘총알받이 돼라’

최근 유행하는 ‘탈 코르셋’ 운동 역시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 남성 비하 누리집 ‘워마드’에서는 화장하는 여성은 생각이 없으므로 때려도 되는 ‘홍내X지(남성 성기에 빗댄 여성 간 혐오 표현)’로 치부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징병제를 둘러싼 남녀 간 해묵은 갈등의 불씨는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에 옮겨 붙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대체복무가 포함되지 않은 현행 병역법 제5조 1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반면, 입영 거부자를 처벌하는 88조 1항에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체복무를 주장해온 여호와의 증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군과 전혀 무관하며 징벌적 성격이 없는 순수 민간 대체 복무 마련”을 촉구했다.

여호와의 증인에 따르면, 양심을 이유

로 병역을 거부해 수감된 신도는 214명이다. 전국 법원에서 판결이 보류된 사건은 953건이다.

관련 기사가 나오자, 댓글에는 각종 욕설과 함께 “총 들지 말고 총알받이 하면 되겠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특히 군필자들은 ‘양심적’이라는 표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들은 비양심적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현재는 선고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여 병역의무이행은 ‘비양심적’이 된다거나, 병역을 이행하는 병역의무자들과 병역의무이행이 국민의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학습과 수용으로 다수결 원리 보완해야

학계에선 자본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맞물린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큰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을 수용할 의지가 낮은 상황이 혐오를 유통시키고 있

다고 진단한다.

황명진 고려대 공공사회학 교수는 “시장과 다수결 민주주의에서 영향력을 발휘 못하는 소수집단에 대한 고려가 혐오 문제와 연관된다”며 “우세한 집단의 소수자 혐오 문제를 해결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에 대한 정보가 불균형하고 학습 의지가 약한데다, 이들을 수용하려는 우리사회의 체제가 제대로 안 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남성이나 여성, 한국인과 난민, 군필자와 병역 거부자 등은 자아의 확장인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우세한 집단이 소수 집단에 대한 학습과 수용을 편향적으로 하거나 그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황 교수는 “이 같은 집단 간 갈등 구조가 수용으로 발전하려면, 대의 민주주의에 합리적인 토론과 의사결정을 담보하는 등의 시스템을 보태야 한다”며 “사실과 논증이 다수결을 보완하는 속의 민주주의가 정착될 때, 소수자 차별이 줄면서 본질적 민주주의에 가까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 GS25, 5만명과 즐기는 ‘뮤비페’ 개최

이적·다뉴·헤이즈 등 공연

GS25가 고객 5만명과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초대형 이벤트를 진행한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오는 8월 4일 일산 킨텍스에서 5만명의 고객과 함께 맥주와 R&B, 힙합, 인디, 발라드 등 다양한 뮤직 장르가 어우러진 축제 ‘2018 GS25 MUSIC&BEER 페스티벌’ (이하 GS25 뮤비페)을 진행한다. 5일 밝혔다.

2017년 유통업계 최초로 진행했던 GS25 뮤비페는 올해 참여 인원을 2배로 늘리고, 고객의 음악적 취향을 고려해 라이브 스테이지와 점프 스테이지 등 듀얼 공연장으로 마련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오후 1시부터 11시까지 라이브 스테이지에서 이적, 정엽&영준, 10CM, 정준일, 윤판판 등 감성을 사로 잡을 인디, 발라드 뮤지션의 공연이 펼쳐진다. 같은 시각 점프 스테이지에서는 다이나믹 듀오, 크러쉬, 헤이즈, 창모, 해쉬스완, 마이크 로닷, 식케이, 팔로알토, 허클베리 등 신나는 합작 아티스트의 공연이 고객들을 위해 준비돼 있다.

GS25 뮤비페에 참여하는 5만명의 고객들은 음악 공연을 즐기면서 킨텍스 공연장

내에 설치된 맥주 부스에서 맥주와 다양한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으며, 각 부스에서 진행되는 현장 이벤트도 즐길 수 있다.

공연장 주변에는 30개의 국내외 브랜드 맥주 부스가 설치되며, 각 부스에서는 한 캔(500ML) 당 2500원에 맥주를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 GS25 뮤비페에 함께 하기 위해서는 GS25가 이달 22일까지 진행되는 나만의 냉장고 이벤트를 통해 초대권을 수령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참여하고 싶은 고객은 GS25에서 맥주 상품을 구매하고 GS&POINT를 적립하면 상품 1개당 응모권 한 개가 생성되며, 응모권을 클릭하고 고객정보를 입력하면 응모가 진행된다. 20세 이상 고객들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응모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여러 번 응모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GS25 관계자는 “2017년 유통업계 최초로 GS25 뮤직&맥주 페스티벌을 개최해 고객들의 큰 호응과 SNS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며 “고객에게 사랑받는 뮤직&맥주 페스티벌이 되도록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준비하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 추신수, 홈런으로 44경기 연속 출루

MLB 아시아 선수 신기록 수립

이치로가 보유한 43경기 돌파

‘출루의 달인’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스즈키 이치로를 넘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아시아 출신 선수로는 최장인 44경기 연속 출루 신기록을 수립했다.

그것도 시즌 16호 솔로 홈런으로 달성해 기쁨을 더했다.

추신수는 5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2018 MLB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홈경기에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3회말 1사 후 게릿 폴을 상대로 솔로 이치를 그렸다.

전날 경기까지 스즈키 이치로(일본)와 함께 43경기 연속 출루로 이 부문 아



/AP연합뉴스

시아 선수 공동 1위를 유지했던 추신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새로운 역사를 쓰는 데 성공했다.

1회 첫 타석에서 펜스 바로 앞에서 잡히는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났던 추신수는 1-0으로 앞선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폴의 시속 154km 바깥쪽 포심 패스트볼을 밀어쳐 좌중간 담을 넘겼다.

5월 14일 휴스턴전부터 연속 출루 행진을 시작한 추신수는 다시 만난 휴스턴을 상대로 뜻깊은 기록을 세웠다.

이와 함께 추신수는 오티스 니슨과 함께 텍사스 프랜차이즈 연속 출루 공동 3위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부문 2위는 KBO리그에서도 잠시 뛰었던 홀리오 프랑코(46경기)이며, 1위는 월 클라크(58경기)다.

추신수는 앞으로 4경기만 더 연속 출루 기록을 이어가면 조이 보토(신시내티 레즈)와 앨버트 푸홀스(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가 보유한 현역 선수 최장 기록인 48경기 연속 출루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메이저리그 역대 기록으로 따지면 추신수의 44경기는 1908년 이후 공동 100위이며, 역대 1위는 ‘타격의 신’ 테드 윌리엄스의 84경기다. /최규준 기자 ch9720@

## 올 여름 만끽하고 싶다면 ‘맑은물 리조트’가 제격

서울 강남에서 80분 거리 위치

코앞 내린천과 앞산의 풍광 볼거리

휴가철을 맞아 도심 밖 청정자연을 만끽하고자 하는 휴가객들이 늘고 있다. 올해는 해외 만큼이나 국내 여행지가 큰 인기로 꼽힌 만큼, 전국 곳곳의 명소를 찾는 이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근교에 위치한 휴양지는 더욱 각광 받는다.

‘맑은물 리조트’의 경우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강남에서 80분 거리에 위치한다. 도심에서 가깝지만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기엔 더할 나위 없다. 코앞에 흐르는 내린천과 앞산의 풍광이 제대로 된 자연 속 휴가를 만끽하게끔 한다.

가족, 연인, 친구 등과 함께 즐길 거리도 풍부하다. 리조트 앞 내린천에서는 민물 낚시를 즐길 수 있으며, 내부에는 자연



거와 농구대, 노래방, 탁구장, 족구장 등이 준비돼 있다. 리조트 주변에는 래프팅, 썰매, 번지점프, ATV, 서킷카트, 야침가리트레킹 등 다양한 레포츠 거리가 마련돼 있다.

산속에 설치된 바베큐 공간에서 맛과 맛을 즐길 수도 있다. 바베큐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면 리조트에서 최상급 한우, 삼겹살 세트와 제철 나물을 저렴하게

서비스로 만날 수 있다. 또 방동막국수, 고향집, 매화촌 등 현지 맛집과도 가깝다.

맑은물 리조트는 모든 객실이 자연부이기 때문에 통창을 통해 내린천과 산의 전망을 볼 수 있다. 또한 숙박객의 휴양과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한정된 객실 수량만을 보유하고 있어 여유로운 휴양을 만끽할 수 있다. /김민서 기자

##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7 | 해질 / 19:57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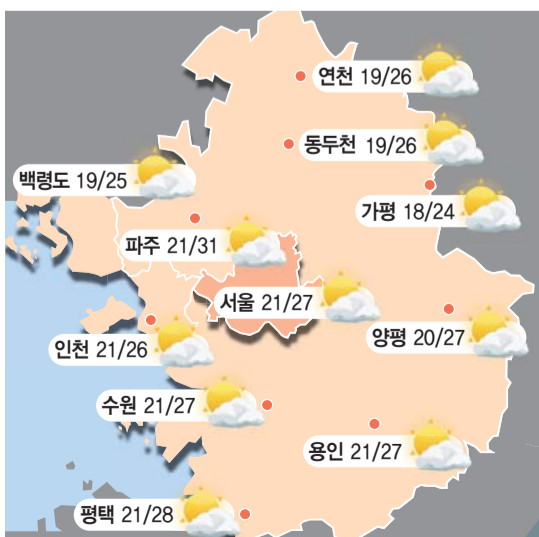
6일

음력 : 5월 23일

수도권 날씨

27~21°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